

새정부가 풀어야 할 경제과제

박근혜 대통령 당선

대선후 주식시장

# 긴 불황 끝을 경기 부양책 최우선

# 큰 이슈 없어 '단기 강세'

### 규제 완화·세제 개편 기업 투자 유도 부동산 침체 지속엔 하우스푸어 폭발

경제계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 게 '위기 극복'과 '경제 활력'을 주문했다. 경영환경이 좋지 않은 만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010년 6.3%였던 경제 성장률이 지난해에는 3.6%로 하락했다. 올해 1분기에는 2.8%, 2분기에는 2.3%로 떨어졌으며 급기야 3분기에는 1.6%에 그쳤다.

내년에는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발표한 '2013년 중소기업경기·경영환경 전망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은 내년 경제성장률을 2.9%로 전망했다. 지난 2011년과 2012년 경기 전망이 각각 4.2%와 3.5%로 나타난 데 이어 3년째 하락한 수치로,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2.4%를 기록한 이후 4년 만에 최저다.

광주·전남지역 기업들도 내년 경기를 암울하게 내다봤다. 광주상공회의소가 조사한 '2013년 1분기 제조업 기업경기전망'에 따르면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전 분기보다 5포인트 하락한 78로 4분기 연속 하락하며, 기준치 100을 크게 밑돌았다.

이는 유럽발 재정위기 여파와 미국발 재정절벽 등 세계 경제 환경이 좋지 않은 데다 오랜 경기침체로 자금 사정이 악화되고, 반면 원자재 가격은 상승하는 등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우선적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된 '경제 민주화'도 좋지만 일단은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일자리 창출과 투자에 적극 나

설 수 있도록 규제 완화와 세제 개편, 원칙이 지켜지는 노사관계 확립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것을 요청했다.

건설·부동산업계는 무엇보다 주택 담보대출을 비롯한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인식,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지원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집값 하락과 거래 실종으로 어렵게 내 집을 장만하는 사람들이 하우스푸어로 전락했고, 국내 100대 건설사 가운데 20개사 이상이 불황을 이기지 못한 채 쓰러진 상태다.

또 생애 최초 내집 마련 수요자들에게 대출 규모 확대와 저금리로 집을 살 수 있는 길을 터주는 등 주택구매 능력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도 주문했다. MB정부는 지난 5년동안 26차례 이상 부동산 정책을 쏟아냈지만 침체의 끝은 더욱 깊어졌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새정부 들어서도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

하우스푸어 폭발과 가계부채 부실 등으로 경제 전체가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유통업계는 경기불황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규제를 풀어주기를 희망했다.

올들어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정치권과 정부는 대형마트의 강제휴무일을 지정하고 신규 점포 개설에서는 거래제한 등 각종 규제를 실시했다. 이로 인해 유통업계는 내수경기 침체와 맞물리면서 성장률이 둔화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금융·증권업계도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또 자본시장통합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금융투자업계에 도약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수출 여건의 악화와 내수 부진, 부동산시장 침체 등 대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경제주체들의 역량을 결집하고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18대 대통령 당선자가 확정되면서 새 대통령이 국내증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금까지 국내증시는 역대 대선 이후 정책 기대감 등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대선 프리미엄'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 4대강 관련 대형 국책사업으로 건설·토목 관련 업종들이 '대운하 수혜주'로 꼽히며 급등했지만 박근혜 당선인이 내세운 공약들과 관련된 종목들은 펀더멘털을 반영해 오른 것이 아닌데다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지 않기 때문이다.

때문에 당선인과 관련된 종목에 대한 이해독실을 따지기 보다는 글로벌 경기에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19일 증시전문가들은 전례를 살펴볼 때 새로운 정권에 대한 기대감과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증시가 일시적으로 상승할 수 있지만 결국 국내 증시의 방향성을 결정할 결정적 요인은 세계 경기여건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종모 신한금융투자 광주지점장은 "올해는 대선보다는 글로벌 증시에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당선자의 경제정책이 증시에 영향을 미칠만한 큰 이슈가 없었고 올해처럼 유로존 재정위기, 미국의 재정절벽 이슈 등 경기 불확실성을 높이는 대외변수가 많아 이번 대선이 증시에 끼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대선이 끝나면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는 측면에서 증시에 긍정

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국내 주가는 단기적으로 상승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대선 후 뒤따르는 경기부양책이 소비심리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데다 그동안 정책적 불확실성 탓에 투자 결정을 보류했던 기업들이 투자 방향을 결정하는 것도 영향을 미친다.

우선 당선인이 내건 경제민주화, 복지 등 공약과 관련해 개별 수혜주 중심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또 경제민주화도 대기업에 대해 비교적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이 강세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증시에 영향을 크게 주기보다는 단기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 농지은행 지원 대상 연령 상한 기준 완화

농림수산식품부는 내년부터 농지은행 지원 대상자의 연령 상한 기준을 완화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지를 매매하거나 임대차해 농업인의 경영면적 확대를 지원하는 '농지규모화 사업'은 기존 60세에서 64세로 완화한다. 경영회생을 지원하는 '경영회생 농지매입지원사업'은 70세에서 75세로 확대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한국농어촌공사(www.fbo.or.kr, 전화 1577-7770)에 문의하면 된다. /연필뉴스

### 올 3분기 노동생산성 작년 동기 1.8% 감소

올해 3분기 전 산업의 노동생산성 지수가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8% 감소한 104.0이 됐다.

노동생산성은 작년 동기와 비교할 때 3분기 연속 감소했다. 산출량은 전 산업 기준으로 0.9% 증가했다.

업종별 증가율은 제조업 0.4%, 서비스업 1.7%, 건설업 -4.3%로 서비스업이 생산 증가를 주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3분기 노동투입량은 2.7% 늘었고 근로자 수와 근로시간은 2.2%, 0.6%씩 증가했다. /연필뉴스



**와인·케이크 호황**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 모임이 늘면서 유통업체에서도 와인과 케이크 매출이 크게 늘고 있다. (주)광주신세계가 지난 14~16일 매출을 살펴본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와인 매출은 약 30%, 케이크 예약 주문은 40% 증가했다. <광주신세계 제공>

### 고 김향수 명예회장 탄생 100주년 엠코코리아 광주공장서 기념식

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는 지난 17일 고 김향수(사진) 명예회장 탄생 100주년을 맞아 광주공장서 기념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주호 사장을 비롯해 전·현직 임직원과 유가족, 친지 등이 참석했다. 고인 흉상 제막식과 일대기, 친필 휘호와 생전 모습 등을 담은 화보집도 발간됐다.

김 명예회장은 1912년 강진에서 태어나 1968년 아남산업을 통해 반도체 패키징과 테스트 산업에 뛰어들었다. 국내 기업으로는 최초로 반도체 사업을 시작한 반도체 산업 개척자다.

하지만 아남반도체는 1997년 IMF 외환위기로 어려움을 맞게 되자, 미국 엠코테크놀로지에 인수돼 1999년부터 엠코코리아로 다시 태어났다. 엠코테크놀로지는 올해



약 200억 달러 규모 세계 반도체 패키징 및 테스트 산업에서 시장 점유율 2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한국·중국·일본·대만·필리핀 등 5개국에 생산기지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 법인인 엠코코리아는 지난해 매출액 1조5000억원어치를 기록했으며, 광주·서울·부령 세 곳에 생산공장을 두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삼성, 노키아 누르고 세계 휴대전화 시장 첫 1위

삼성전자가 올해 사상 최초로 노키아를 누르고 세계 휴대전화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삼성전자는 또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애플을 누르고 점유율 1위를 차지, '결정적 우위'를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18일(현지시간) 시장조사업체 IHS 아이서플라이의 발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해 출하량 기준으로 세계 휴대전화 시장의 29%를 차지, 작년보다

점유율을 약 5% 늘린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노키아의 점유율은 작년 30%에서 올해 24%로 떨어져 세계 휴대전화 시장에서 14년 만에 처음으로 1위를 내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세계 전체 휴대전화 출하량은 1% 증가에 그친 반면 스마트폰 출하량은 35.5% 증가하는 등 휴대전화 시장이 급속히 스마트폰 중심으로 재편되는 데 따른 것으로 IHS는 분석했다.

웨이 램 IHS 수석애널리스트는 "올해 휴대전화 시장에서 삼성의 성공과 노키아의 어려움은 전적으로 스마트폰 부문에서 두 회사의 엇갈린 부침 때문에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삼성전자는 지난해보다 약 8% 늘어난 28%의 점유율로 애플(20%)을 누르고 1위를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다양한 안드로이드 제품을 생산, 애플을 앞섰다고 IHS는 설명했다. /연필뉴스

[광주] 남구 서구 광산구 동구 북구 (CMB) 18	순천 여수 여천 광양 고흥 14	목포 신안 무안 강진 완도 16	스카이라이프 13
[광주] 동구 북구(광주방송) 20	나주 화순 보성 담양 구례 곡성 18	해남 영암 진도 장흥 16	IPTV 18

CHANNEL A www.ichannelA.com 채널A